

# HAY DAYS OF HAYON

달리와 가우디의 후예답게 '전방위 컨템퍼러리 디자이너' 하이메 아온(Jaime Hayon)의 작업에는 열정과 유머가 넘쳐난다. 꿈을 꾸는 듯한 상상력과 화려하고 서사적인 감각으로 작게는 꽃병과 접시에서 크게는 호텔과 패션 스토어를 디자인하며 세상을 리노베이션하고 있는 그를, 파리의 메종 드 오브제 현장에서 직접 만났다. WORDS 정기범(파리 통신원)



아온의 크리에이티브한 스케치북.

**Q. 당신은 날 때부터 창조적인 사람이었나? 내가 특별한 재능을 가졌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크리에이티브한 면모가 점점 발전해왔다고 생각한다. 실수할 때마다 호기심을 가지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재능이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결국 지금의 내 이력은 창의성과 함께 성장해왔다고 볼 수 있다. 시간을 통해 이력과 창의성이 함께 자랄 수 있었고 그래서 지금의 내가 있다고 생각한다.**  
**Q. 학창 시절에도 독특한 시도가 담긴 작품들을 만들었을 것 같다. 그때 만든 작품 중 기억나는 것이나 자랑할 만한 게 있다면? 누구나 마찬가지로 하지만 학창 시절에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알아보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해보게 마련이다. 주로 그래픽 작업이나 그림을 많이 그렸다. 3D나 조각에도 손댔고, 그러다 언제부터가 실용적인 아이템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런 다양한 경험들이 디자이너로 발돋움할 수 있게 하는 터닝 포인트가 됐다.**  
**Q. 인테리어 디자인, 가구, 일러스트레이션, 식기, 도자기 등 작품 종류도 다양하다. 이 중에서 어떤 작업이 가장 흥미롭나? 흠, 많은 영역에 걸쳐 프로젝트를 진행한 건 사실이다. 특별히 어떤 걸 꼬집어 말할 수 없지만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처음 스케치하기 전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대로 생각을 종이에 표현할 때 그리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도전할**



하이 컬처와 로 컬처의 만남을 표현한 테이블웨어.



아티스트 니엔케 클룬더(Nienke Klunder)와 공동 작업한 인스탈레이션 작품.

